

1면에서 계속

순례자 일행은 법당으로 가 참배를 한다. 만불전이라고 하는데, 배휴가 지원하여 지은 법당으로 후대에 여러 차례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삼존불 후면과 측면 벽에 봉안된 만불의 실체는 1만 2218존(尊)이고 그중 1존은 개금이 아닌 순금 불상이라고 하여 발견하는 사람은 수승한 인연을 짓는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금의 만불전 편액 글씨는 장개석이 1945년에 태허대사(太虛大師)를 만나 써주었다고 한다. 밀인사 지객스님이 순례자 일행을 위산영우 선사의 진영이 걸린 객당으로 초대하더니 환영의 인사말을 한다.

중국의 역대 황제들이 밀인사를 존송하였다고 한다. 당 헌종과 선종, 송 신종과 휘종, 청 순치, 옹정, 건륭, 도광 등의 황제가 칙서를 내렸다 하고, 근대에는 모택동 주석이 밀인사를 찾아와 밀인사 주지와 3일 밤낮을 토론한 끝에 '구국구민(救國救民)은大本대원(大本大源; 농민)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위산 명차는 천년 전 농선병행(農禪並行)의 흔적
수불 스님이 위산 스님의 가풍을 잇고자 노력하는 밀인사 대중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는 답사를 한다. 그 사이 위산존에서 생산하는 '위산영광(滌山靈光)'이라는 명차가 객당 안에 싱그러운 향기를 풍긴다. 위산에 차가 있다는 사실은 천년 전 위산의 대중들이 농선(農禪)을 했다는 흔적이라. <위산록>을 보면 체용일어(體用一如)를 보여주는 차(茶) 공간이 나온다.

위산이 차밭에서 찾았을 따다가 양산에게 말했다. "종일토록 찾았을 따도 너의 소리만 들릴 뿐 너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구나!" 이에 양산이 차나무를 흔들자 위산이 말했다. "너는 작용만 얻었을 뿐 본체는 얻지 못했다." "스님께서는 어찌 하시겠습니까?" 위산이 잠자고 있기만 하자 양산이 말했다. "스님께서는 본체만 얻었지 작용은 얻지 못했습니다."

"네놈에게 방망이 30대를 때려야겠구나."
"스님의 방망이는 제가 맞겠습니까만 저의 방망이는 누가 맞습니까?"
"네놈에게 방망이 30대를 때려야겠어."
지객스님은 밀인사의 역사를 전시한 관람실로 안내한다. 밀인사를 소개하는 글에 밀인사 창건 내력이 짧게 나와 있다. 당나라 헌종 원화(元和) 2년

“바른 안목이 중요할 뿐이니 처신을 묻지 않겠다”

(807)에 위산영우가 백장의 유지를 받들어 위산으로 들어와 있다가 훗날 배휴가 당 선종의 칙서를 받아서 절을 건립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사찰에서 인쇄한 또 다른 글은 위산의 입산 연도를 특정하지 않고 당 현종 원화연간(806~820)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원화연간은 위산의 나이로 치자면 36세에서 50세에 해당한다. 편차가 너무 심하다. 나는 국내에서 이은운의 <중국 선불교 답사기>를 읽은 적이 있어 49세로 기억했는데 수불 스님은 밀인사로 오던 중 버스 안에서 순례자들에게 37세(807년)라고 범문하신 바 있다.

“고향인 북건설 사투리를 쓰셨던 위산 스님은 15세에 출가하여 대매 스님에게 머리를 깎았고 백장 스님을 만나 20대 후반에 깨달고 37세에 위산으로 들어가 5, 6년 정도 은거한 뒤 40년 넘게 행화를 펴시다 83세에 임적하신 분이시오. 회창법난 전후에 위산에는 많은 대중이 살았어. 선객들의 사투리는 다 달랐을 겁니다. 교육자적인 면모를 지닌 데다 근면하고 참고 견디는 힘이 컸던 위산 스님이었으니까 큰 회상을 이루었을 것이고, 스님은 법난 전후의 선종을 장악했을 겁니다. 그래서 위산 앞에 큰 대(大)가 붙어 대위산 스님이라고 부르지요. 훗날 설봉 스님도 '천하에 고불(古佛)이 두 분 있는데 조주와 위산'이라고 했어요. 조주 스님은 위산 스님보다 7살 아래였지요. 두 분 다 마조 스님 2세 범승이 고요.”

40년 행화라면 수불 스님의 말씀이 정확하다. 산술적으로 위산 스님 일생의 행장에 있어서 앞뒤가 맞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위산영우를 신뢰한 백장의 강한 의지다. 백장은 5, 6년 동안 위산을 지켜 부 뒤 상좌 나안을 보내 스님을 돕고 지지해 했던 것이다. 나안 역시도 22살 많은 사형 위산을 존경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위산영우가 위산의 주인으로 가게 됐을 때 격렬하게 반발한 사람은 수좌 화림스님이었다.

‘사제인 영우가 나를 제치고 장차 1500대중이 살게 될 도량의 주인으로 가다니!’

화림은 수모를 당한 것 같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분을 삭이지 못하고 밤새 얼치락뒤 치락하다가 아침 일찍 선원으로 갔다. 선원에는 대중들이 모여 백장의 범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화림은 백장을 보자마자 하소연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제 1좌입니다. 어찌 영우 스님이 위산의 주지가 될 수 있습니까?”

백장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말했다. “만약 그대가 대중 앞에서 격외의 말을 한 마디만 한다면 그대에게 주지를 주리라.”

백장이 바닥에 놓인 정병(淨瓶)을 가리키며 말했다.

“정병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

정병이란 찻물을 담은 물병이었다. 대중이 산자락에 차밭을 일구어 차를 자급했던 것이다.

“말뚝이라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백장은 화림의 대답에 수긍지 않고 위



재상 배휴가 지원하여 건립한 만불전. 1만2218존(尊)의 불상 중에 한 분은 순금 불상이라고 한다.

산에게도 똑같이 물었다. 그러자 위산은 정병을 발로 차서 거꾸러뜨리고는 선원을 나가버렸다. 그러자 백장이 웃으면서 말했다.

“제 1좌인 선각이 영우에게 져구나!”

‘정병의 이름(淨瓶之名)’이란 공간이 탄생되는 순간이었다. 나안은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백장의 지시를 받아 수십 명의 대중을 이끌고 가 위산영우를 보좌했던 것이다.

위산은 법난 후에도 중국선종 중심이 되다
나안이 데리고 온 수십 명의 대중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라는 백장의 농선 가풍을 이어 절 부근의 산자락을 논밭

었는데 이때의 돈을 회창개원전(會昌開元錢)이라고 불렀다. 고작 장안과 낙양의 사찰 4곳에 스님 30명, 각 주마다 사찰 1곳에 스님 5명에서 20명만 두도록 하였으니 불교는 중국 땅에서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위산의 대중들도 환속하여 번복하고 각자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법난을 피해 숨어 살았다. 위산도 나안도 양산도 마찬가지였다. 위산의 법을 받은 41명의 법제자가 모두 그랬다. 마침내 무종이 과보를 받아 일찍 죽고 선종이 즉위한 뒤에야 불법을 허락하는 복불령(復佛令)이 내렸으나 중국불교는 바로 일어서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위산 밀인사는 달랐다. 바로 선불교의 중

는 양산해적(仰山慧寂, 807~883)도 있었다. 어느 날 위산이 양산에게 물었다.

“<열반경> 40권에서 어느 정도가 부처님 말씀이며 어느 정도가 마군의 말이겠느냐?”

“모조리 마군의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너를 어찌해 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양산이 두 손을 모으고 나직하게 물었다. “저의 지난 한때의 처신(行履)은 어찌 됩니까?”

“너의 바른 안목이 중요할 뿐이니 그때의 네 처신을 묻지 않겠다.”

해적이 번복한 채 숨어 산 것에 대해서 자책하자 위산은 바른 안목으로 위의를 잃지 않고 살았으면 그만이라고 36살 아래의 아들 같은 제자를 위로했던 것이다.

위산은 나안, 즉 훗날 북건설의 장경사 주지를 지내게 되는 장경대안(長慶大安, 793~883)에게 밀인사 2대 주지를 물려주고 자신은 20리 떨어진 동경사로가 은거한다. 이후 위산의 법제자인 양산해적이 3대 주지, 향엄지한(香嚴智閑)이 4대 주지를 맡았다. 이어서 위양종 범맥의 문도들이 주지가 되었으나 북송(北宋) 초년에서 청대(清代) 초년에 이르러 위양종은 임제종으로 합류된다. 밀인사 23대 주지는 석상초원(石霜楚圓)의 법사인 운익덕건(云益德乾)으로 임제종 법사가 밀인사의 첫 주지가 된 것이다.

밀인사에 상주하는 스님이 가장 많았을 때는 3700명에 달했다고 하지만 임제종으로 흡수된 까닭은 무엇일까. 겉으로 보이는 거대한 가람들과 대중의 숫자는 허장성세일 뿐이고, 부드러운 종풍과 화로 속에서 불씨 하나를 찾는 반조의 수행이 이어지지 못했기에 임제종 종사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만 것이 아닐까. 두 말하면 사족일 것 같다. <계속>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위산 밀인사 법난 위기에도 크게 융성 위양종, 북송초~청대초 임제종 합류

으로 일궈나갔다. 농선병행하여 산자락들이 논밭으로 변하자 대중은 500명으로 불어났다.

그런데 위산이 72세 때(842년) 회창법난이 일어나고 만다. 대중은 강제 환속을 당해야 했다. 중국 불교의 법난(法難)을 ‘3무 1종’이라고 하는데 북위 무제, 북주 무제, 당 무종, 후주 세종의 박해를 말했다. 그중에서 도술에 심취했던 당 무종이 일으킨 회창법난(842~845)이 가장 참혹했다. 도사 조귀진의 망언을 듣고 불교를 배척하게 된 무종은 비구스님과 비구니스님을 강제로 환속시키는 법령을 내린바 환속한 스님이 26만, 파괴된 절이 4600 곳이나 되었다. 법령을 어기면 즉시 처형됐다. 순교자는 풀잎의 이슬처럼 사라졌다. 철로 된 불상은 농기구로, 금으로 된 불상은 돈으로 만들

십이 됐다. 법난 전에도 500여 대중이 살았고, 법난 후에도 배휴가 당 선종 대중 3년(849)에 황제에게 상주하여 밀인사 불사를 승인하는 칙서를 받고 그가 쓴 밀인사 편액과 승전(僧田) 1000무(畝; 1무는 약 100평)를 기증하려고 밀인사로 출발하였던바, 이에 위산은 대중을 이끌고 칙서를 받으러 영정을 나갔다. 지금도 칙서를 주고받았던 내지요(來旨牒)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배휴의 지원을 받은 밀인사는 사마두타의 예언대로 1500여 대중이 운집했다. 당대 선종의 진면목이 됐다. 회창법난으로 위기를 맞은 선종이 오히려 위산에서는 크게 융성했다.

위산은 법난으로 의기소침해지고 상처받은 선객들을 밀인사로 불러 모았고 법으로 치유했다. 제자 중에는 한때 환속했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



위산영우 선사 초상

梵鐘名家 聖鐘社

범종을 진정한 예술로 승화시킨 21세기 최고의 걸작품 탄생

세계 최고의 성종사 주조기술에 개채(改彩) 분야 최고의 권위자인 청원스님의 기술이 더해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명품 범종이 탄생되었습니다.

본 제품은 개채 및 개금을 통해 범종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개채와 같은 표면처리로 인해 종소리가 둔탁해지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신제품으로, 한국 범종의 수준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킨 금세기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www.sungjonga.co.kr

이 사람아!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흔들림 없이 천 번의 소리가 나오는 저지
완전 주부리면 귀야 바뀔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워겠습니다!

대우: 범산 원광식
(종묘유형문화재·대한민국 명장)

아름다운 개채 범종

금고 (금박+은박)

범종 (은칠+개금)

해인사종 (금박+은박)

● 전사: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43 Tel:02-733-6141 ● 공장: 충북 진천군 덕사면 합곡리 406-28 Tel:043-536-2581